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사방이 책과 그림으로 빼곡한, 흡사 서재에 번기와 세면대를 들여놓은 듯한 화장실을 꾸며 놓고 살고 있었다. 그가 이런 화장실을 꾸밀 수 있기까지의 사연을 들여보자.

홍천에 '베이커리 북카페' 내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에서 출발한 트럭 14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국내 대표 속옷 제조업체 비비안(현 남영L&F) 사장을 지낸 김종현(58) 씨와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가르치고 있는 이형숙(53) 씨 부부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27년간 장기근속하며 대기업 CEO로 발돋움한 김 씨. 역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그가 2000년 9월 '북카페를 열기 위해서'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카페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고 홈페이지 제작·관리법을 배우기 위해 6개월간 전산학원에 다녔다.

'사모님'이란 호칭을 들으며 편안하게 생을 즐길 수 있었던 부인 이 씨 역시 안락한 생활에 대한 미련보다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30년 전 대학 불교 동아리 룸비니의 수행대회에서 만나 서로 컵눈에 반했던 것처럼, 귀농의 꿈도 그렇게 함께였다.

이들 부부가 선보인 것은 베이커리(Bakery) 북(Book) 카페 '피스 오브 마인드(마음의 평화·www.peaceofmind.co.kr)'.

김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집해 온 고서 1만여 권과 부인 이 씨가 5개 대학에서 배운 제빵기술이 만나, 고서를 읽으며 고소한 빵 굽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카페가 탄생한 것이다.

"서울 인사동이나 강남에 차릴까도 생각했지만, 홍천에 자리한 아로마동산을 보고 '바로 이곳'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공작산 산등성이로 노을이 지고 밤이면 별이 총총히 뜨는 장관을 보고 결정을 내렸지요."

참선과 예불로 하루 일과 시작
책 읽고 빵 굽고 서빙하며...

그 후론 일상처럼 일과 진행했다. 8월 중순 경 입주하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울로 올라와 집을 샀다. 살림살이 외에도 1만여 권에 달하는 고서와 5천여 장의 LP음반, 수십 구의 불상까지 옮겨야 하는 이삿짐은 그렇게 트럭 14대를 빼곡히 채웠다.

"카페는 내 집 안방처럼 푸근하고 편안하게 꾸미자는 생각이었어요. 소파와 책상뿐 아니라 타자기, 진공관 전축 등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집에서 쓰던 것들입니다. 이곳은 우리 부부에게 일터라기보다



귀농한 대기업 CEO
김종현 이형숙 부부

따뜻한 빵, 지혜의 책으로
마음의 평화 이루세요

휴식적인 셈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자녀의 입학·졸업식은 물론이고 부인의 출산 때도 곁에 없었고 가족과 휴가 한 번 못가는 등 집에서는 늘 '부재중'일만큼 일에 파묻혀 살았던 김 씨. 그런 그가 북카페에서 테이블을 뒤고 음식을 서빙하고 마당을 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종로 토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시골에서의 그의 삶은 자연스럽고 익숙해보였다.

부인 이 씨도 요즘 주방에서 하얀 조리복을 입고 빵을 굽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만든 빵을 먹고 힘을 얻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보람차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집에 모신 불상 앞에서 예불을 올리고 참선을 마치면 남편은 공장 소장 도서목록 정리에 들어간다. 최근엔 불교철학 에세이와 그동안 수집한 고서를 영인본으로 묶은 '피스오브마인드' 시리즈를 출판도 준비하고 있다. 아내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닷새는 하루 종일 빵을 굽고 이들은 서울을 오가

며 강단에 섰다.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불은 빠뜨릴 수 없지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부처님 말씀인 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시는 부처님을 만

"돈많이 번다고 행복하진 않아"
'피스오브마인드' 출판 준비

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도시에서의 풍족한 삶을 내면지고 시작한 이들의 도전은 단순한 '귀농'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것은 아마도 북카페를 연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회향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회향은 그동안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따뜻한 빵 한 조각과 지혜가 가득한 책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부 나름의 회향인 셈이지요."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북카페 근처에 '서예기념관'을 짓는 것. 김 씨가 소장하고 있는 서예작품들과 책을 전시하기 위한 곳이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것이다. 책 제목은 신혼방에 포어처럼 써 놓았던 '결혼했다 방심 말고 오는 연적(戀跡) 막아내자'로 정했다. 서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자는 뜻이라고.

바쁜 것으로 치자면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덜하지 않지만, 부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다. "사람들은 '왜 역대 연봉을 마다하고 시골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 억 원을 번다고 그만 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일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면 피스오브마인드로 오세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현·이형숙 부부가 직접 꾸민 베이커리 북카페 '피스 오브 마인드' 내부모습(사진 위)과 서재를 옮겨놓은 듯한 화장실(사진 아래).



김종현·이형숙 부부가 직접 꾸민 베이커리 북카페 '피스 오브 마인드' 내부모습(사진 위)과 서재를 옮겨놓은 듯한 화장실(사진 아래).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부처를 찾는 야단법석

禪師 7인 초청 대법회

기간 : 3월 21일부터 ~ 27일까지 오전11시
장소 : 서울 상도동 보문사 법당
문의 : 02)823-7443, 814-8793

일정

3월 21일 (음. 윤 2.1) 고우스님 / 각화사 태백선원장
3월 22일 (음. 윤 2.2) 일오스님 / 월명암 사성선원장
3월 23일 (음. 윤 2.3) 현산스님 / 화엄사 선등선원장

3월 24일 (음. 윤 2.4) 혜국스님 / 제주 남국선원장
3월 25일 (음. 윤 2.5) 무여스님 / 죽서사 선원장
3월 26일 (음. 윤 2.6) 대원스님 /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

3월 27일 (음. 윤 2.7) 혜정스님 / 법주사 총지선원 회주

國師峯 보문사 www.bomunsa.org